

지금 겨울 맞아?... 어제 최고기온 23.6°C

1923년 기상관측 이후 1월 역대 최고기온 경신 시민들 “초여름 같아 황당”... 반팔차림도 목격 제주공항엔 강풍특보... 항공기 결항·지연 속출

7일 제주지역 기온이 24°C 가까이 치솟으며 기상 관측 이래 역대 가장 더운 1월로 기록됐다. 이례적인 고온 현상에 일부 시민들은 반팔 차림으로 외출에 나섰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제주시의 낮 최고기온은 올들어 가장 높은 23.6°C를 기록했다. 이는 1월 기준으로 봤을 때 1923년 기상관측 이후 역대 가장 높은 온도다. 이전 최고 기록은 지난 1950년 1월 17일의 21.8°C였다.

성산의 낮 최고기온도 20.4°C까지 치솟아 기상 관측 이래 1월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다. 고산의 낮 최고기온은 18.1°C로 2002년 1월 13일 기록한 18.8°C에 이어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높았다. 서귀포시의 낮 최고 기온은 18.4°C로 제주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일 최저기온도 줄줄이 최고값을 갈아치웠다. 이날 0시38분 제주시의 일 최저기온은 기상 관측이래 역대 최고인 18.5°C를 나타내며 이전 기록(2002년 1월 15일 15.6°C)을 18년 만에 경신했다. 이밖에 서귀포시 17.3°C, 고산 17.1°C, 성산 16.9°C 등 다른 지역도 역대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다.

초여름을 연상케하는 이례적인 고온 현상에 시민들의 옷차림은 한결

가벼워졌다. 제주 시내 거리에서는 두꺼운 외투를 벗고 소매를 걷어 올리거나, 아예 반팔 차림으로 돌아다니는 시민들의 모습이 간간히 목격됐다.

반팔 차림으로 출근길에 나선 백모(64·오라2동)씨는 “눈도 내리지 않는데도 기온도 평년보다 높아 겨울 같지 않다”면서 “겨울 낭만이 사라지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거리에서 만난 김모(46·삼도1동)

씨는 “이렇게 따뜻한 1월 날씨는 난생 처음 본다”면서 “희한하다”고 전했다.

기상청은 따뜻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제주에 유입되면서 이례적인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제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태평양에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남서풍을 따라 지속적으로 유입된 것이 기온 상승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면서 “또 밤사이 구름이 많이 끼면서 (따뜻한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온실효과가 나타났고, 특히 제주시는 한라산에 의한 편향까지 겹치면서 서귀포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온 상승 폭이 컸다”고 말했다.

8일부터는 다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8일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 영향으로 제주 지역은 하루 만에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평년 겨울 기온을 보이겠다”면서 “또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5°C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7일 제주전역에 바람이 거세게 분 가운데 제주공항엔 오전 순간 최대풍속 초속 23m의 강풍이 몰아치는 등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윈드시어와 강풍특보가 발효됐다.

이로 인해 제주 출·도착 항공기 30여편이 결항됐고 90여편이 지연운항되면서 항공기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제주도내 태양광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현물 가격 폭락 장기화로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는 재생에너지업계의 ‘주식’이자 ‘화폐’로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발전량에 비례해 정부에서 REC를 발급받은 뒤 주식거래처럼 현물시장에서 REC를 판매하고 생산된 전력은 전력거래가격(SMP)에 판매해 수익을 얻는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4일부터 제주지역 태양광 발전 REC평균가격이 0원으로 하락해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달 현재 육지부 REC평균가격은 4만 7300원이지만 제주는 여전히 0원이다. 제주도내 SMP도 지난해 150원에서 이달평균 115원 선으로 하락했다. 도내 발전소에서 LNG를 사용하면 SMP는 70~80원으로 하락한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카본프리 아일랜드(CFI) 2030계획’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에 투자한 농민들의 피해는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카본프리 아일랜드(CFI) 2030계획은 제주도가 오는 2030년까지 도내 전력 수요를 신재생에너지(4085MW)로 대체하는 것으로 이중 태양광 발전은 34.4%인 1411MW이다.

도내 한 태양광발전 투자농민은 “제주도가 카본프리 아일랜드(CFI)

태양광 REC 거래중단 장기화 피해 확산 현물가격 폭락에 도내 1000여 농가 전전공공

2030를 추진한다는 말을 듣고 대출까지 받아서 총 47억원을 태양광 발전에 투자했다. 지난해 3월부터 발전을 시작했는데 10월까지의 그나마 원리금을 상환하고 농사를 짓는거보다 나왔지만 지난해 10월부터는 원금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전력거래소를 통해 도내 2개 발전소에서 LNG를 사용하면서 가격이 하락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앞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이 더 힘들어지게 된 만큼 제주도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신재생에너지 사이트에 가면 REC 거래가가 나와 있다”며 “제주의 경우 0원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제도에 따르면 500MW 이상 규모의 대형 발전사는 총발전량 가운데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발전사가 자체 생산한 재생에너지 전력이 부족하면 소규모 사업자로부터 구매해 의무량을 채워야 한다. 하지만 국내 발전 공급업들이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량을 이미 확보했고 육지부 태양광발전소가 급증하면서 공급량은 많아지고 수요량은 감소하면서 태양광 전력 구매가격이 낮아지고 있다.

고대르기자 bigroad@ihalla.com



감귤 배경으로 '찰칵' 최근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이 포근한 겨울을 즐기고 있는 가운데 7일 서귀포시 회수동 도로변 가로수 감귤나무 앞에서 서너명의 관광객들이 제주겨울 추억을 남기는 사진을 찍고 있다.

개인하수시설 1만개 넘는데...

제주연구원 실태조사 진행 10개 중 7개 수질기준 초과 “대부분 시설물 관리 부실”

제주 지하수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1만개가 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연구원은 7일 ‘제주도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지

하수 3대 오염원(화학비료·가축분뇨·생활하수) 가운데 생활하수에 대한 조사가 미흡함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는 공공하수관로가 연결되지 않은 곳에서 이뤄지며, 1일 오수 발생량이 1㎡를 초과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지난해 9월 기준 도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1만400개소이며, 이중 1000개소 이상 시설을 보유한 지역은 조천읍 1543개소, 애월읍 1517개소, 표선면 1124개소, 안덕면 1102개

소, 한림읍 1035개소 등이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밀집된 애월읍과 조천읍에 위치한 10개소를 ‘시범연구지역’으로 선정, 운영·관리실태 및 방류수 수질분석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대부분 시설이 관리가 부실했고, 전원이 차단되거나 고장난 사례도 빈번했다. 아울러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슬러지를 주기적으로 청소하지 않아 해충이 서식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방류수 검사에서는 문제가 더 심했다. 10개소 가운데 7개소가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특히 용도가 숙박업소인 4개소에서는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기준치의 5배를 초과했으며, 부유물질(SS)도 2배 이상 높았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 제주연구원은 개인하수처리시설 1만400개소 가운데 50㎡ 미만 시설이 99%에 달하는 점을 꼽았다. 50㎡ 미만의 운영·관리를 위한 교육이나 기술관리인선 임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제주연구원 관계자는 “향후 1만 400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적정처리 여부 및 운영실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경기도나 강원도처럼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지역단위로 그룹화시켜 전문기관에 위탁관리 혹은 공영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제주도서관 어린이 도서관 건립 지원

교육청 “당초 올해 개관 예정서 2021년으로 조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직속기관인 제주도서관이 올해 안에 선보이기로 했던 가정 ‘어린이 도서관’의 개관 시기가 내년 하반기로 미뤄졌다.

7일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제주도서관은 사업비 70억여원을 들여 제주시 이도2동 도서관 내 부지에 별관으로 어린이 도서관을 건립한다. 현재 도서관 1층에 어린이·청소년자료실(492㎡)을 두고 있지만 자료 공간 확충, 이용자별 맞춤 공간 운영 등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어린이 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연면적 2692㎡ 규모로 지어진다. 여기에는 어린이 자료실, 책놀이터, 독서공간, 수유실 등을 비롯해 지역주민과 학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홀, 동아리방, 커뮤니티 공간이 갖춰진다.

제주도서관은 올해 안에 개관을 목표로 어린이 도서관 건립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실시계획 용역이 지난 12월말에야 마무리되면서 완공 시기도 내년 2월로 늦춰지게 됐다. 제주도서관은 오는 3월 이후에 공사를 시작해 내년 2월 어린이 도서관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준비 과정을 거쳐 같은 해 7월 중에 문을 연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디자인적 요소에 대한 외부 자문 내용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설계 기간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2019년 제주에너지공사 태양광보급사업 **고객선호도 1위!**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태양광 발전

한 우물만 파온 **제주의 전문기업**과 함께 하십시오

- ▷ 과수원, 밭, 유희부지 소유자
- ▷ 옥상/지붕이 넓은 건축물 소유자
- ▷ 30년간 안정적 소득 희망자
- ▷ 장기간 “임대료 수입” 희망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연금같은 수익 보장의 대명사!

태양광 발전소



30년 동안 일정하고 “안정적인 소득”보장
장기간 지금이 보장되는 “임대료 수입”

부담되는 사업장 전기요금 “뚝”

일반용 태양광



“일반용” 또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장
전기요금 절감 후 추가 50% 할인혜택 적용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제주시 노형로 356 벽상빌딩 2층
www.jeju-solar.co.kr